

차자석 박사의 불교공부 7기



십선계

불교에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은 무엇인가? 육조 혜능스님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아야 도를 깨우칠 수 있다”고 말하며 불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도에 선악이 없다면 구태여 인간이 선을 지향하며 살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불교에는 선악의 기준이 없다고 말해야 하는가?

불교윤리에서 말하는 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세속적인 선이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선이다. 이것은 절대선이라 말하기도 한다. 세속적인 선은 일상 윤리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성격의 것이다. 그러나 절대선은 그 성격이 다르다. 선과 악을 초월한 개념이다. 세속적인 도덕률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것이 인간의 의식을 넘어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인간의 의식 속에 있지만 인간들의 고정 관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이것을 불교적인 전문 용어로는 해탈이라 말한다. 혹은 열반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무엇이나 인식의 전환이라는 깨우침을 통해 사물의 한계를 통탈할 때에만 열반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여 그를 해고하고자 할 때, 그것이 욕설이나 주먹질 등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상태로 그칠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각 개인의 의지가 무엇 보다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의지가 어떠한가에 따라 용서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폭력이나 전쟁도 가능하다. 겉으로 전개되는 모든 행위의 이면에 의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의지의 여하에 따라 행위의 형태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부처님은 각 개인의 의지에 주목하게 된다.

열 가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언어에는 거짓말, 꾸밈말, 이간질, 아첨이 있다. 신체적인 행동에는 살생, 도둑질, 사된 음행(혹은 음행)이 있다. 의지에는 성냄(분노), 탐욕, 아리석움이 있다. 이러한 열 가지들 항목 중의 어느 하나인가를 행한다면 그것은 악한 행위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 가지 착하지 않은 행위는 의미에서 십불선업(十不善業이라 말한다. 반대로 거짓말 하지 않고, 꾸밈말 하지 않으며, 이간질 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는 것, 나아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 하지 않으며, 사된 음행을 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탐욕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것을 열 가지 착한 행위라는 뜻에서 십

주변인에 정신·육체적 해악 판단기준 궁극적인 선은 심성도야 통한 열반뿐

체득은 가능하다. 불교윤리의 궁극적 목적은 해탈에 있기에 세속적인 선악의 개념과 구분한다. 불교에선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세속적인 윤리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것은 인간들의 의식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윤리도덕의 기준도 무상한 것이기에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며, 현재 우리들이 절대적 윤리판단의 준거로 생각하는 것들도 항상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나의 판단 기준과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고 하여 배척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며, 나의 판단만이 절대적이라고 집착해도 안 된다.

현실성을 감안하여 부처님께서는 열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그것은 언어와 행동, 그리고 우리들의 의식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입, 몸, 마음의 세 가지 행위라는 의미의 3업이라 표현한다. 여기서 언어와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어떠한 행위를 막론하고 행위의 이면에는 각 개인의 의지가 전제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의지는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선업(十善業이라 말한다. 결국 선과 악이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으며 우리들의 의지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로 판가름하게 된다.

열 가지 선악의 기준이란 매우 현실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함께 살아가는 주변인들에게 심리적, 육체적, 정신적 해악을 끼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의지인데 그것은 모두 각 개인 자신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성냄, 욕심, 아리석음에 떨어지는 것은 모두 개인적인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절제와 선정과 지혜에 의해 탐욕과 성냄과 아리석음을 제어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끊임없는 자기 수행이 결국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 정화된 마음이 자신의 행위로 표출이 되며, 그 행위가 사회성을 지니면서 사회의 변화에 어떠한 태도로든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열 가지 선악의 기준은 항상 변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다. 궁극적인 선이란 우리들의 심성을 도야해서 그 결과 얻어지는 열반뿐이다. 개인적 열반을 통해 사회적 해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불교학 박사〉



지상 백고좌

만 오 스님

(건봉사 한주)

중생들은 의지가 강하지 못해 성불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불은 이 몸으로 이루기가 어려워 내생에나 기약하렵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내생에 성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이 오탁약세의 세계에 일체 중생을 건지시기 위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내세에 서방세계 극락정토의 문을 활짝 열어제쳤습니다. 열불선으로 극락왕생해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여기서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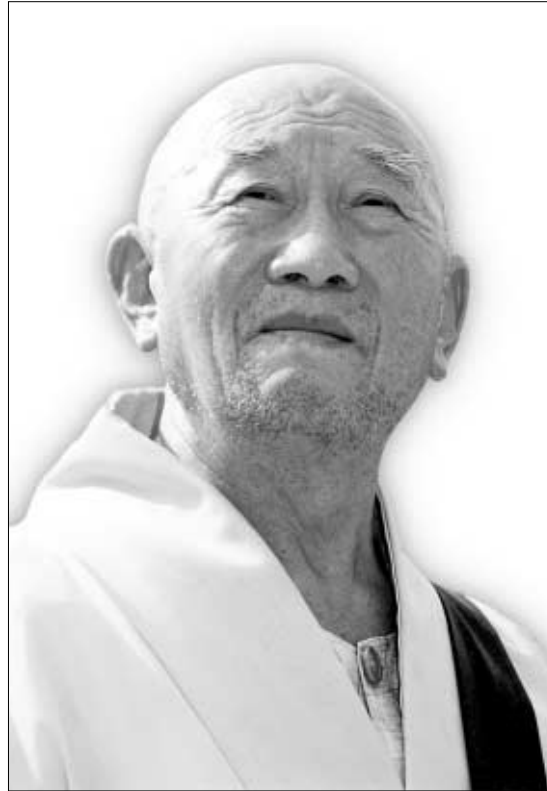
그럼, 왜 열불선을 수행해야 할까요? 30여년 전, 전남 성룡사 조실 청화 스님에게 들었던 열불선 법문을 말씀드려야 하겠군요. 그 때 스님은 “열불은 선에 비하면 자유로운 것이다. 열불은 우리 가정을 윤택케 하고 번창케 한다. 크개는 국가를 부강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제가 열불선을 공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열불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信), 원(願), 행(行)’이 구족되어야 합니다. ‘신’은 부처님을 믿고, 나를 부처님께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은 항상 부처님께 서원을 드리는 것을, 나머지 ‘행’은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행입니다.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열불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명호를 읽으나 서나 누워있거나 잠을 자거나, ‘언제 어디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수행법이 바로 열불선입니다.

열불선은 무엇일까요? 이쯤 되면 불자들의 호기심이 발동할 겁니다. 열불선은 누구에게도 물어볼 것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단지 ‘나무 아미타불’만 하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항상 염하면, 어느 스님에게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들을 것도 없이 오직 간절한 마음만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날, 어두운 밤에 있어 있을 때, 불자들의 배 속에서 비쳐오는 광명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 ‘열불은 이것이야!’ 하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서 깨우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열불선의 효과는 그저 덮어놓고 말하면 부처님을 찾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간화선, 묵조선 등의 수행법과 열불선은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열불선은 첫째, 장소나 시간에도 구애 받지 않습니다. 앉아서도 서서도, 가면서나 멈춰서도, 가고 오면서도, 집을 나서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기차 안에서 전자

안에서, 버스 안에서도 항상 내 마음만 먹는다면 어디에서도 할 수 있는 수행법이 열불선입니다. 열불은 그래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수행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과거를 뒤우치고 참회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열불선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열불을 한다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불선은 타력(他力)수행입니다. 그러나 단계 단계를 밟아 올라서면 열불선은 자력(自力)수행이 됩니다. 간화선 등은 처음부터 자력이요, 열불은 처



◇ 열불선은 타력에서 시작해 자력수행으로 갈무리된다’는 만오스님.

열불선도 성불의 길 신·원·행 함께 구족돼야

음에는 타력이지만 이후 점점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맑아지면서 자력수행이 됩니다.

어느 큰 스님이 법문을 해도 이런 결과는 똑같을 것입니다. 굳이 자력과 타력으로 간화선과 열불선을 구분한다면, 간화선은 자력이기에 자력으로만 성불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열불선은 타력으로 시작해서 결과는 자력이 됩니다. 비유한다면, 간화선은 가난한 데서, 열불선은 아주 부유한 데서 시작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고 봅니다. 간화선은 자력이기에 갖은 고통과 어려움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지만, 열불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볼까요? 어느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이때 간화선은 해를 쳐서 건너고 할 수 있고, 열불선은 배를 타고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열불선이 간화선에 비해서 낮은 수행

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불선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항상 열불하는 내 마음 기승 깊어 안고 신념을 가진 상태에서 열불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하는 일’과 ‘열불’은 서로 장애를 주고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열불을 강조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서 자기 하는 일에서 얻는 소득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그 여유분을 남을 위해 도우라”고 말씀입니다. 농부는 남보다 더 열심히 농사를 지어 많은 수확물을 얻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맡은 일에 열심히 하면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불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충실하고, 즐겁게 생활하면서 일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불선

“시간·장소 구애받고 지극히 열불하면 극락왕생”

간(肝)이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산자력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울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력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생체항 효능을 얻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력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반 껍데기를 골라내어 깨끗이 씻고 해동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육질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룬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다슬기 기용: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원저 9기마니를 달은 뒤 원저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양숙에 들어온 뒤 항아리를 녹아 올려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용을 만드는데 원저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고약 8-9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일”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신마을 토종 (민속농원)

- 매일경제신문 인제 경영학 연재 -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궁북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압박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져나가는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발이 지치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몸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 (팔보효소)

영험도량

픽마승 예언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점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점신
- 20년전 낙태혼 점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점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원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소리공양 실적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시설 설치. 1500여 사찰에 무선 마이크 및 각종 마이크 공급.

영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 고성능 무선마이크
- ▷ 각종 마이크 스피커
- ▷ 법당전용 소파

바구니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